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11. 14.(월)
담당 부서	교육복지정책국 지방교육재정과	책임자	과 장 채홍준 (044-203-6199)
		담당자	사무관 박형명 (044-203-6529)

##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과밀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언론사명 : 연합뉴스 / 2022. 11. 13.(일)
- 제목 : 교육부 과밀학급 대책에 ‘학급당 20명 제한’ 은 빠질 듯,  
“지역·학교급별 여건 달라... 학급당 28명서 줄이는 방안 모색

### <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>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지난해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후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여건에 맞는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신·증설 교부금 단가 인상,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 및 기준을 개선\*하였습니다.

\* ① 학교 신설비 산정인원: 33명 → 28명, ② 학교 증축 단가 : 학급당 1.2억 원 → 학급당 2억 원, ③ 투자심사 횟수 및 시가: 3회 → 4회(1, 4, 7, 10월), ④ 학생유발시점 개선 : 공동주택 입주시기 확정(분양공고) 시점 → 공동주택 개발사업 승인(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)

○ 한편, 과밀학급 해소 추진의 본질은 교사역량 개발, 교육환경과 교수 학습의 개선 등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해 종합적인 교육 여건 마련이 핵심이며,

-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과밀 해소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□ 향후 교육부는 도심지역 내 적정 학교 신설 여건 마련을 위해 규제 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하는 등 행·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도 교육청의 과밀학급 개선 대책을 지원하고, 시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토대로 과밀 해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